# 더 특별한 전북, 남원 · 정읍과 함께

## 김관영 도지사, 시 · 군 순회방문

### 남원서 2차 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 논의
### 함파우아트밸리 사업장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

### 정읍서 제3산단 공업용수 관로 개량 등 현안 논의
### SK넥실리스 찾아 현황 청취 · 동박 생산공정 확인

'시군과 함께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시군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가 17일 남원과 정읍을 찾았다.

**▲남원서 "동부권 발전사업, 남원 지역특화발전 성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김 지사는 먼저,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에서 명예시장으로 위촉돼 '더 특별한 전북시대, 남원시와 함께 혁신, 함께 성공'이란 슬로건으로 업무를 공유했다.

이날 남원시는 문화와 미래산업이 공존하는 남원시를 표현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해 김 지사를 맞이하는 행사로 남원시만의 특별한 명예시장을 환영했다.

김 지사는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남원시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남원시에서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을 건의하고 현안으로는 2차 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 남원유치,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천연물 화이트바이오산업 생태환경 기반 조성 사업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남원시의 눈에 띄는 예산 1조원 시대 개막, 성공적인 제59회 전북도민 체전 개최, 전국 최초 2023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 유치 등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다"며 "동부권 발전사업이 남원시 지역특화발전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시 · 군간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5개 권역, 4개 분야별 특례 발굴에 남원시도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며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청원과의 만남 시간에서는 남원시 공무원 6백여명이 참석해 '도정철학 및 주요 정책방향'을 주제로 김 지사의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에 참석한 시청 직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성공의 결실이 남원시에도 공유되기를 희망했다.

김 지사는 특강 중 인구소멸에 대한 극복 대안을 묻는 질문에 "광역계정 기금(320억원) 투자계획 수립에 남원시 지역거점 중점투자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은 2024년 광역계정 기금사업에 적극 검토하겠으며,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모사업 선정도 반영해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직원들은 김 지사에게 소통의 기술 등 슬기로운 직장생활의 꿀팁을 묻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가 이뤄졌다.

청원들과의 만남은 '전북도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피켓을 들고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남원시와 함께 하기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이어 김 지사는 함파우아트밸리 사업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문화예술의 도시 남원을 위한 문화산업 육성 지원 요청에 "문화도시 남원에 문화산업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남원 국악전용 공연장 조성, 남원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이 계획대로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정책그룹 시민소통위원회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원시 미래산업인 드론산업과 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며 김 지사는 "올해 상반기 국토부 계획이 발표되고 이전 입지와 관련된 정부 지침이 정해지면 남원지역의 입지조건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기능을 고려해 전북도 차원에서 대응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를 찾아 시급한 현안을 귀기울여 들어주신 김관영 지사님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남원시는 전라북도와 함께 혁신, 함께 성공을 약속한다."며 문화와 미래산업이 공존하는 남원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정읍서 "미생물 바이오산업 등 지역 강점 가꿔 나가 새롭게 도약하는 정읍 되도록 힘 모으자"**

김관영 도지사는 남원에 이어 정읍시를 방문해 1일 명예 정읍시장으로 위촉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청원과의 만남 및 도민과의 대화와 SK넥실리스 현장방문을 통해 전북 발전에 필요한 각종 현안에 대한 공감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 지사는 이날 이학수 정읍시장과 간부들이 참석한 간부회의 자리에서 전북도에서 주관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최우수기관 선정을 비롯해 구절초 지방정원 지정,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개관 등 지난해 정읍시가 이룬 성과들에 대해 격려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시 · 군간 상생발전을 위해 정읍시도 특례 발굴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읍시는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사업 지원,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처리비 지원, △정읍천-정읍역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제3산업단지 공업용수 관로 개량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이어 김 지사는 청원과의 만남에서는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철학을 공유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정읍은 미래성장동력인 미생물 바이오산업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도시이자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최적의 관광도시로 지속성장 가능성이 큰 도시"라며 "정읍의 강점과 잠재력을 가꿔 나가 새롭게 도약하는 정읍이 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농수산대 청년연합회 회원과 함께 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청취하며, "청년농이 성공하기 좋은 환경,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촘촘하게 지원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 일정으로 SK넥실리스를 방문해 기업 현황을 청취하고 동박 생산공정을 직접 확인하며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차전지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략산업이다"며 "SK넥실리스가 이차전지 선도기업으로서 산업을 견인해 나간다면 전북도가 주력산업으로 꼽고 있는 이차전지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을 방문해 주신 김관영 도지사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하다."며 "앞으로 전라북도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롭게 도약하는 정읍을 만들어 나가는데 온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기자 · 정읍=김대환기자

## 민주 안호영 의원, 무진장 지역농협 조합장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이 지난 3월 8일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무진장 지역농협 조합장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14일 무주농협 본점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로 당선된 무진장 조합장 9명과 무진장 지역농협 및 조합원 숙원사항을 청취하고 경제사업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성태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대표, 이방현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상무, 정재호 농협은행 부행장 등 농협중앙회 주요 임원들과 간부들이 무주를 방문하여 무주군 조합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윤정훈 · 전용태 · 박용근 전북도의원,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및 오광석 부의장,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 및 김명갑 군의원,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 성태근 더불어민주당 완진무장위원회 농어민위원장, 류기행 장수군 농어민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들 등 40여명이 참석해 무진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안호영 의원과 함께하는 완주군 조합장간담회는 지난 7일 전주김제완주축협에서 진행되었으며, 완주군 조합장 전원이 참석해 완주군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무주=전문선기자

# "지방의정연수센터,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을"

## 김정수 도의원,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서 촉구

지난 13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김정수 의원(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3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전북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현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확대 · 승격시키는 수정안을 제출,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정수 의원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경남도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가칭)지방의회인재개발원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동시에 현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해 "전북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건의안을 채택('20.10.)하는 등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산물이고, 교육운영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과정에 있으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지방의정연수센터 간 시너지 효과가 높다"며 만일 경북도의회의 제출안이 의결되는 경우 전주 대 진주 LH 본사 유치전과 같은 영호남 지역갈등이 심각하게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제안설명을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원만하게 협의해 의결한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회기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확대 및 승격시키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농식품 · 바이오산업 혁신 기반 구축 근거 마련

## 최형열 도의원 대표발의 '농생명혁신성장위 설치 · 운영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 ·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2014년부터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지역 내 산 · 학 · 연 · 관의 소통 채널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생명연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 농생명연구협의체는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도내 27개 연구기관 ·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기획과제를 13건 발굴하고 혁신기관 네트워크 회의 4건,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 전략포럼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농생명혁신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농생명 · 바이오 분야 대형사업 발굴 및 혁신형 공동 R&D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확대 ·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농생명산업의 미래수요를 반영한 과제발굴을 위해 위원회 내 총괄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분과위원회는 새만금농생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반려동물 · 말산업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관련 분야의 정책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거나 대학 및 국 · 공립 연구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최형열 의원은 "전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를 설치 · 운영함으로써 도내 농생명분야 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에 대한 지역차원의 발전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고 전북의 농식품 · 바이오산업 혁신 기반 구축 및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대광법 개정안 통과 반대, 명백한 차별"

## 전주시의회, 김세혁 시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전주시의회가 17일 제4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광법으로 불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소속 의원 35명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국회, 각 정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현행 대광법은 법률 적용 대상인 대도시권을 특별 ·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를 포함한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서 제외돼 광역교통2030사업 예산(127조1192억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현행법이 현실적 교통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광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전주시와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각각 65만명과 142만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지난 2019년 인근 지역을 포함한 일일 교통통행량은 전주 11만6046대, 광주 13만23대의 비슷한 수준으로 현행법이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서는 전주권을 대도시권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해 광역교통시설을 만들 때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런 상황에도 대광법 개정안의 처리를 보류해 광역교통망 관리에 전북이 배제될 위기에 빠져 있다.

김세혁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주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창원이나 청주는 이미 부산 · 울산권, 대전권의 대광법 적용 대상"이라며 "개정안의 신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곳이 전주가 유일한 상황에 개정안 통과 반대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북이 더 이상 교통오지로 남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광역교통 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광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이날 400회 임시회를 맞아 1차 본회의가 끝난 후 기념식을 개최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김영태 기자

## 진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군정질문 · 추경 심사 진행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세부 일정으로는 의사일정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소관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심사 · 의결한다.

또한 19일~21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청취, 24~25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이어 27일부터 3일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기자

## 남관우 전주시의원 "교차로 타이머신호기 도입 등 추진을"

전주시의회 남관우(진북, 인후1 · 2, 금암1 · 2동) 의원은 17일 제4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교차로에 타이머신호기를 달고, 보행 신호등에 적색 잔여 시간표시기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주지역 교통사고 2,151건 중 교차로 사고는 1,422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선분리대, 회전교차로, 차로 증설, 미끄럼방지 포장 등 다양한 개선사업을 펼쳐왔다.

하지만 현재 신호체계에서는 자동차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지날 때 적색등 표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 추돌이나 급제동 상황에 따른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남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주요 교차로 중 무인교통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사고다발구역으로부터 타이머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타이머신호기는 현재 설치된 신호 장치에서 시간 흐름을 접속 받아 타이머 장치만 추가 설치하면 되는 방식으로 운전자의 신호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도로개설이나 보행교통 환경개선시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표시기 설치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경찰청 보행 신호등 보조 장치 표준지침에 적색 잔여 시간표시기가 신설되면서 다른 도시는 도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전주지역은 아직까지 설치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행자가 적색 신호가 끝나고 몇 초 후에 녹색 신호가 켜질지 알게 되면 보행자의 신호 위반 억제 효과가 크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요 교차로부터 이런 장치를 확대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